

서 평

숫물키즈의 유토피아 돌아보기 : 양승훈 (2019)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맹미선*

* 이감콘텐츠연구소 전자우편: phpsmaeng@gmail.com

양승훈 (2019),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서울 : 오월의봄.

한때 알고 지내다 소원해진 지인 A가 있다.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A가 대학원을 마친 후 거제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2010년 대 초는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공대 지인 대다수가 조선업계에 취직하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휴일이면 종종 인근 도시나 아주 멀지 않은 해외로 여행 다녀온 사진을 올렸고, 인사 대신 소개팅시켜 달라는 말을 던지곤 했다.

A의 일상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일은 조선소를 지키고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본거지에서 휴식하는 삶 그러나 친구의 ‘좋아요’를 통해 내 타임라인까지 넘어 오던 A의 일상은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조선업 불황을 말하는 뉴스가 연일 포털 메인에 오르내렸다. 당시의 나로서는 거제의, A의 속사정을 알 길이 없었다.

대체 거제 조선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올해(2019년) 초 출간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는 2015년 불어 닥친 조선업 위기의 원인과 거제 조선업 노동자의 문화적 특징을 내부자의 시선에서 조망한 책이다. 기업, 특히 제조업계에 관한 이야기는 기업의 성장 지표를 앞세우거나 위기를 극복한 기업가 정신의 내러티브로 작성되기 쉽다. 반면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는 기업에 속한 사람들의 문화, ‘중공업 가족’의 문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위기를 설명한다. 저자 양승훈은 전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낯선 땅 거제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조선소 부근에 정착한 노동자

가족이 어떻게 회사와 운명 공동체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찬찬히 훑는다. 또 1990년대 이래 한국 조선업계가 차례로 맞이한 호황과 신산업 위기의 장면을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다시 풀이한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저자는 석사 졸업 후 공채를 거쳐 거제에 위치한 ‘빅 3’ 조선 기업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다. 서울 태생인 저자는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 지방 산업도시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한다. 거제 출신인 저자의 후배가 대우 조선소에 다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자는 굳이 아버지 직장을 언급하는 후배가 ‘촌스럽다’고 여겼다. 그에게 있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2010년에 이미 1인당 지역총소득(GRDP) 4,146만 원을 넘긴 산업도시 거제의 부유한 삶과 지역 대표 기업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임직원 가족들의 자부심을 직접 마주할 일은 거의 없었다.

저자가 묘사하는 중공업 가족의 삶은 다음과 같다. 조선 업계 호황기에 조선업 노동자들은 고임금·장기 근속을 동력으로 전형적인 4인 핵가족 모델·남성 배우자 생계 모델을 유지해왔다.¹⁾ 모든 직원은 소득, 근속 형태, 거주 환경이 비슷하다. “직원들은 일련의 동질성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중공업 가족이 되어갔다.(p. 65)” 높은 소득 수준에 따라 형성된 높은 교육열로 키워낸 자녀들은 대학 입학과 취업을 위해 섬을 떠난다.

1) 여성학 연구자 조주은의 『현대 가족 이야기』(2004 : 이가서)에도 이와 비슷한 4인 가족 모델이 묘사돼 있다. 노동 운동 활동가이자 울산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부인이기도 한 조주은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를 남편으로 둔 여성 18명을 인터뷰해 중공업 노동의 특징과 중산층 가정의 신화를 분석한 바 있다.

나는 저자가 서술하는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이유인즉 나야말로 온 평생을 산업 도시의 유토피아 정서 속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거제도 출신 후배의 자의식과 비슷하게, 나는 어린 시절 포항제철이 제공한 각종 혜택을 복기하며 곧잘 스스로를 ‘포항제철이 낳은 자식’, ‘씻물 키즈’라 규정해오곤 했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나 근 20년을 포항 시민으로 살아온 나는 학창 시절 10년을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위치한 지곡동에서 보냈다. 지곡 단지는 포항제철²⁾이 포항에 연고가 없는 임직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만든 주택 단지다. 보이는 건 산이요, 모자란 건 숲인 유흥 멸균 지대는 내부인에게는 그 자체로 훌륭한 복지 환경이었던 반면 그 특유의 배타성 때문에 포항 토박이들의 빈축을 사는 공간이기도 했다.

지곡단지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임직원의 자녀 교육을 책임질 에스컬레이터식 교육기관이 즐줄이 자리해 있었다.³⁾ 우리 가족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1990년대 중반에 지곡단지에 입주했는데, 부모님이 이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나와 오빠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단지 내 교육기관은 사립학교임에도 재단 지원금이 많아 저렴한 가격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해외 자매결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려서부터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았고⁴⁾ 학교별로 특화된 운동 종목이 있어 잘

2) 1968년 설립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는 2002년 공식 사명을 포스코로 변경한다. 이 글에서는 사명을 포항제철(포철)로 통일했다.

3) 포스코교육재단은 지곡단지 내에서 포항제철유치원, 포항제철초등학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포항제철중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등 7개 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포항제철중학교는 필자 재학 당시 전교생 수가 약 1,900명에 달했다.

갖춰진 예체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교기념일 즈음에는 꼭 방사선 가속기 연구소를 구경한 뒤 포스텍 뒷산을 올랐다.

지곡단지는 안과 밖의 구분이 수월한 동네였다. 단지 내 사람들은 포철 직원, 지곡동 주민이었고, 단지 밖 사람들은 시내 사람들이었다.⁵⁾ 중학교 한 반이 30명이라면 한두 명은 (포스텍) 교수 딸, 한두 명은 연구원 딸, 서너 명이 그 외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나머지에겐 굳이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를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지곡동 주민과 시내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 지곡 단지에는 외지인이 많아 포항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적었다. 일자리를 찾아 타지에서 온 남성 노동자, 그와 결혼해 따라온 가정주부, 임직원 복지 구현을 위해 선발된 사립학교 교사, 포항공대에 다니며 용돈 벌이하는 과외 선생님까지, 지곡 단지 아래 모인 여러 구성원들의 입말 버릇은 2퍼센트 모자란 표준어로 수렴됐다.

단지 내 학생들은 분명 이러한 이질감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자신을 우물 안 개구리라고 칭하거나 지곡 단지의 2퍼센트 모자란 표준어를 ‘지곡어’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다. 또 “우리 학교 교복 입고 시내 나가면 날라리들한테 맞는데, 재수없

4) 내가 다녔던 포항제철서초등학교(현재는 포항제철초등학교로 통합)에서는 미국·중국·호주의 초등학교와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국 자매결연 프로그램의 경우, 각 학교에서 선발한 40명의 학생들이 20쌍의 파트너가 되어 5학년 때는 한국 학생이 미국에, 6학년 때는 미국 학생이 한국에 방문, 파트너의 집에서 2주간 머무르는 방식이었다. 포항제철고등학교는 포항시 최초로 해외 수학여행을 추진했고, 미국 연수 프로그램·일본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5) 포항제철은 1990년대 초까지 지곡단지 입주 권한을 본사 직원에 한정해왔다. 학교 입학 자격도 단지 입주자에 한정되었으므로, 일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단지 밖 부모들은 전세나 위장 전입으로 자녀를 입학시켜야 했다. 지곡단지는 2009년이 되어서야 포항 시민 전체에게 완전 개방됐다.

다고” 같은 괴소문을 퍼 나르며 안과 밖을 구분했다. 그러나 적어도 단지 안에 있는 한 그런 문제의식이 더 자라날 일은 없었다. 돈 벌어오는 아버지, 밥 지어주는 어머니, 중산층 가정의 완벽한 율타리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 서울로 가는 것이 학생들의 최대 목표였다. 비싼 월세와 생활비, 대학 등록금은 노후 대비를 마친 부모님과 아버지 회사가 책임져 줄 것이었다. 그 이후의 일은 알 수 없었다.

텔레비전 뉴스로 거제 소식을 건너 들었을 때도 어렵게 들 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A의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도 내게 거제는 한반도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섬 도시로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나 포항과 거제는 닮은 점이 많다. 조선(철강) 산업의 시작은 민간 투자가 아닌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었고, 거제(포항)는 조선소(제철소) 노동자와 그 가족을 품으며 인구 25만 명(60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다. 거제(포항)는 오직 조선업(제철 산업)을 위해 형성된 이주민의 도시였다. 다만 유토피아의 기억만을 품고 서울로 떠난 싯물키즈로서는 “중국 때문에 제조업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 젊은 사람이 더 이상 내려올 일이 없다더라, OO사에서 OO공장이 철수한다더라” 하는 현실을 고향의 현재 모습으로 등치하기 쉽지 않았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는 싯물키즈의 빈약한 상상력을 채워준다. 2000년대 조선 강국 한국을 만든 주역은 1960년대 이후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해 조선소에 입사한 젊은 엔지니어들이었다. 남다른 눈썰미를 가진 작업장 엔지니어들은 영국, 일본 등 해외 기술자의 도면을 어깨 너머로 익혀 한국만의 표준 설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설계 엔지니어의 일은 제도 용구를 가지고

한땀 한땀 도면을 그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현장에서 오작(誤作)이 나면 생산직과의 협업을 통해 도면의 한계를 해결했다.

문제는 선박 건조 수주에서 빛을 발한 현장 중심의 엔지니어링 경험, ‘하면 된다’ 정신이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통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엔지니어링의 주도권은 맥가이버 세대에서 빌게이츠의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다.(p. 129)” 기업은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영어, 공학, 컴퓨터 기술을 장착한 설계 엔지니어를 수급해야 했다. 하지만 주말마다 ‘거제 탈출’을 노래하던 A의 사례처럼 수도권 공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필요했다. 본사 내 노조 문제, 비정규 일손인 하청업체와의 관계까지, 산업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모든 장면에 사람이 있었다.

거제 제조업 노동자의 현재를 가져오는 저자의 분석은 중공업 가족의 지난 유토피아적 상상이 어떤 식으로 균열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 균열의 징후는 다른 산업 도시에서도 발견된다. 2008년 기준 포항의 1인당 GRDP는 약 3만 달러로 구미(약 4만 5000달러)와 함께 경상북도 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구미 29.8퍼센트, 포항 25.7퍼센트). 2016년 기준 포항의 1인당 GRDP는 약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⁶⁾ 도시 전체의 상황은 침체기에 가깝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 기초단체 지역 내 총생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항의 GRDP는 5년 사이 5,420억 원 줄어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국 228개 기초 단체 중 218위, 경상북도 23개 기초 단체 중 최하위 성장률이다.⁷⁾ 2018년 포항철강

6) 경상북도,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 결과, 2008-2016년 통계 자료 참고.

관리공단은 공단에 등록된 348개 공장 중 43개(12퍼센트)가 휴업, 폐업 상태에 있으며 2013년부터 5년 사이 1700여 명이 공장을 떠났다고 밝혔다.⁸⁾

공장과 노동이 사라진 도시는 그저 폐허로 남을까. 거제와 포항에 앞서 제조업 도시 재생을 고민한 몇몇 역사적 사례가 있다. 콜리앗 크레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스웨덴 말피 주민들의 사연,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에 울려 퍼지는 힐빌리들의 노래⁹⁾, 공장이 재가동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미국 제인스빌 이야기¹⁰⁾ 등, 유토피아의 꿈은 깨어졌을지언정 희망과 회복이 필요한 개인들은 아직 그 도시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는 자칫 나오는 상관 없는 지방 도시의 사정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거제의 사연을 가져와 2019년 한국의 위기를 논의할 포문을 열어주었다. 저자는 누군가가 함부로 유명 도시라 이름 붙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 수많은 가족과 A를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7) 경북일보, 「경북 산업생산 주역 포항·구미 GRDP 최하위 충격」 (2018.10.23., 2019.07.03. 접속)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713>

8) 한국경제, 하인식, 「포항시 “철강혁신 사업 조속 추진을”」 (2018.11.05., 2019.07.03. 접속)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10527901>

9) J.D.밴스 (2017), 『힐빌리의 노래: 위기의 가정과 문화에 대한 회고』, 김보람 옮김, 흐름출판.

10) 에이미 골드스타인 (2019), 『제인스빌 이야기』, 이세영 옮김, 세종서적.